

여행체험1번지 전북으로!

도, 충청서 전북 홍보

중국 중부내륙의 중심 도시 충청에 전라북도 비답이 일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원택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충청방문단은 26일부터 열리는 '제2회 중국국제 스마트박람회'에 참가, 새만금 2023세계잡버리, 아시아스마트농생명벨리, 중국유학생 유치 등 실효성 중심의 對중국 성과창출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이 정무부지사는 26일 국제우호도시 원탁회의에서 각국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전북도정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했다.

이 부지사는 전라북도의 산악농경과 농생명산업, 새만금시대 세계잡버리, 여행체험1번지 전북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 400여명의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다.

특히, 충청시 농업당국은 전라북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산악농경 및 아시아스마트농생명벨리 등 전북도의 농업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예전에 없던 만찬을 요청해왔다.

최재용 전북도 농수산식품국장과 충청시 농업위원회 주임(도 국장급)은 이날 만찬을 통해 전라북도와 충청시 간 농업교류 및 농업의 스마트화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국장은 박람회 세부 프로그램인 '스마트농업포럼(27일)'에서 '아시아스마트농생명벨리'를 다시 한 번 소개할 예정이다.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충청시에서 열리는 2019 중국국제스마트 박람회는 중국 국무원 류허 부총리, 충청시 천민열 시, 충청시 탕량지 시장, 우리나라 이주영 국회부의장, 포르투갈 조지 라카오 국회부의장이 참가했다.

오늘 전북도 충청방문단은 유학생

유치 등 교육관련 교류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충청시 교육위원회와 교육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충청 우전대에서 '전라북도 유학센터'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현판식을 계기로 전라북도 유학센터가 유학생 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도내 대학 및 충청시 교육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학센터 활성화를 견인할 방침이다.

한편, 제2회 중국국제스마트박람회는 충청시가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박람회로, 박람회에 참가한 전북에 큰 관심과 감사를 표하며 충청시장 주재 만찬, 농업당국간 만찬을 주관했다. 또한 27일(화)에는 교육위원회 주관 오찬과 전라북도 유학센터 현판식에 충청시 김부가 참석하는 등 양 지역간 유학생 유치 등 교육교류에도 큰 관심을 보여줄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유·초·중등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6일 오후 2시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2019년 9월 1일 자 유·초·중등 신규교사 5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오늘 학교 공간 혁신 특강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오늘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도내 유·초·중·고 교직원, 일반직 및 교육전문직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한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교공간혁신 사업이란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학습공간을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 개

방형 창의·감성 휴게학습 공간 등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다.

이번 특강은 미래학습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자 학생 중심의 학교 공간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교직원의 인식 변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강사로는 '학교 공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의 저자중 한 명인 홍경

숙 건축교육가가 참여한다.

홍경숙 건축교육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등의 학교공간혁신 사업에 참여해 아이들의 삶이 담긴 학교 공간을 만들고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직접 학교 현장에서 공간 혁신을 실천해 온 저자가 학교공간혁신에 관한 고민과 철학, 학교 공간을 바꾼 실제 사례, 학교 공간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등을 풀어놓을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품질 좋은 전북 농수산식품으로 마음 전하세요”

전북도, 한가위 큰 장터 기획전 운영 등 온·오프라인 홍보 박차

전북도가 2019년 추석 명절을 맞이해 우리 도 우수 농수산식품의 홍보와 판로확대를 위한 '2019년 전북도 한가위 큰 장터 기획전' 운영 등 온·오프라인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도지사인증상품기업협의회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가을 추석을 위해 명절선물세트, 가을 제철 농수산식품을 주요 테마로 운영된다.

온라인상 구입처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거시기 장터로 114개 업체 430여 품목의 온라인 특별 프로모션은 23일부터 9월 9일까지 운영되고, 오프라인에서는 전라북도우수상품관(5개소)에서 도내 시·군을 통해 추천된 우리 도 우수상품(도지사인증

상품) 157개 업체 2000여 품목에 대한 전북도 우수상품 특별 판매행사를 지난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추석맞이 우리도 우수 농수산식품 판매 행사는 햇과일, 친환경쌀, 고급한우, 천연벌꿀, 천연염, 젓갈, 표고버섯, 홍삼, 한방약초, 간장식품, 전통장류, 김치 등 다양한 도내 생산 농수산식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하는 고객들은 각종 이벤트 참여로 가격할인과 상품 무료배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전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농협전북지역본부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등 여러 유관기관들이 홍보 캠페인에 공동 참여,

해당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우리 도 생산 농식품이 더 많은 소비자들이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완주군 이서면에 소재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9. 3.(화)에 도내 우수 농특산물과 마을상품을 생산하는 30여 농가(업체)의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주관, 농협전북지역본부)할 계획이다.

전북도생물산업진흥원에서도 오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소비재 전시회인 '세테메가쇼 2019 시즌2'에 참가해 전북도 우수 농식품 22개 업체의 40여 품목을 전시 판매할 예정으로 내방객들에게 추석맞이 선물로 적극 홍보 및 판촉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내달부터 자동차번호판 체계 8자리로 변경

전북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대한 등록번호 체계가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 시행된다.

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기준 2300만대를 넘는 포화로 인해 등록 체계를 변경한다.

이를 통해 총 2억1000만대의 등록번호가 추가로 확보돼 향후 반영구적으로

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번호체계 변경에 따른 번호인식카메라의 업데이트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쇼핑몰 등 차량 출입에 큰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에서 번호인식카메라를 운영 중인 시설물은 공공 717개소 민간 158개소로 총 875개소에 해당되며, 8월 말까지 완료율 90%에 이를 전망이다.

업데이트 미완료 예상 시설물은 공공 13개소 민간 72개소로 총 85개소이며, 공공부문은 노후화 정비 교체 등이 완료 되는대로 9월내 대부분 완료 예정이다.

업데이트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아파트 등 민간부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시설관리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 업데이트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합동으로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김진성 기자

우수 교육사례 공유 위해 전국 교육기관 한자리에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자체 HRD 콘테스트 개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재민)은 26~27일 전국 시·도 공무원 교육원장과 교수요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지방자치단체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7회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지방의 우수 공무원 교육사례 발굴 및 시상과 공유·확산을 통해 시·도 교육훈련기관이 함께 성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도 교육훈련기관에 직접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HRD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시·도의 우수한 교육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HRD 콘테스트'가 개인별, 기관별로 나눠 2일 동안

필터된다.

지역 현장에 맞게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11건(9개 시도), 교육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의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강의기법 11건(9개 시도) 등 총 22건이 제출되었다. 이 중 예선(7월)을 통과한 17건이 이번 본선에 진출하여 경연회를 펼치게 되며 외부전문가, 현장전문가(시도 심사위원), 관중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12건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다.

수상작은 우수사례집으로 발간되어 전국 시도 교육기관과 지역 현장에 배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회에서는 17개 시·도 교육훈련기관장들이 모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

한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가 개최된다.

협의회에서는 시·도 교육훈련기관의 HRD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 교수요원 육성 및 확보 방안 등을 비롯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게 된다.

박재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새로운 도약의 원동력으로 삼는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 공무원 교육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자치인재원은 30만 지방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지자체 HRD 콘테스트와 같은 우수 교육사례 발굴·확산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 역할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도 교육기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신팔용(1961. 2. 7.생 2019. 6. 7. 사망)의 재산 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구남선 사법보좌관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9년단855 상속한정승인 사법보좌관 구남선

▶ 피상속인: 망 신팔용(1961. 2. 7.생 2019. 6. 7. 사망)

최후주소: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5길 24-4 (금암동)

▶ 공고인: 유미숙

▶ 상속한정승인수리일: 2019. 8. 20.

▶ 공고기간: 2019. 8. 27. ~ 2019. 10. 26.

▶ 주소: (청구인 유미숙)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2길 14, 2층(봉산동) (010-6449-8144)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